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챗GPT, 이미 온 미래' 발간

✎ 주지영 기자 | ⓒ 승인 2023.08.17 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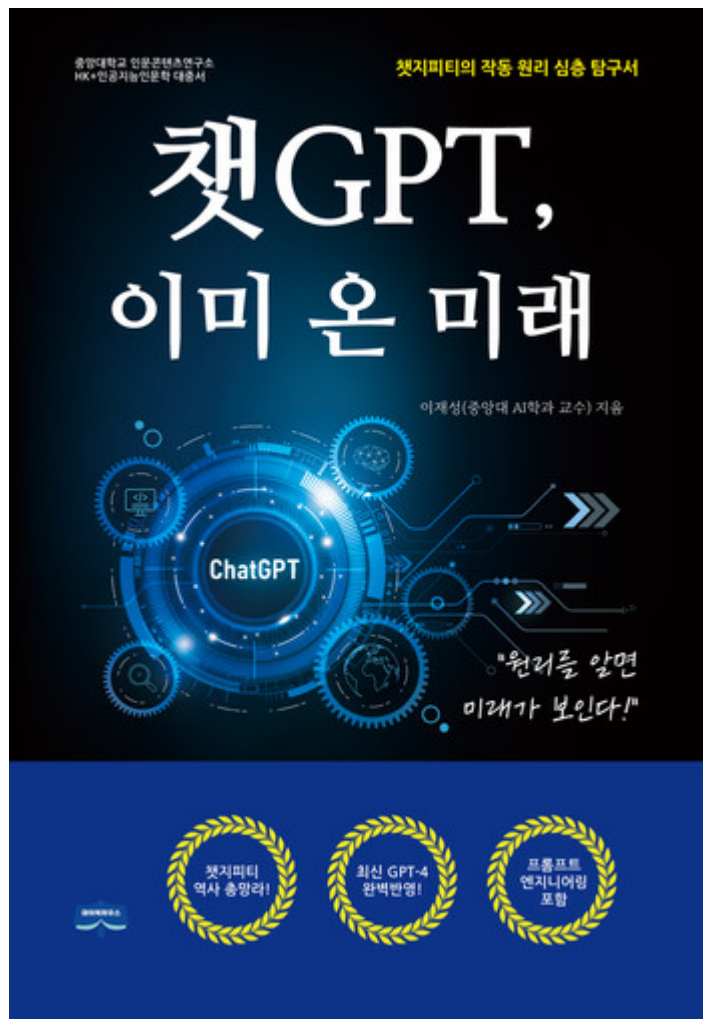
비전공자 눈높이 맞춰 소개 챗GPT 작동 원리 심층 탐구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중앙대학교 (총장 박상규) 인문콘텐츠연구소가 《챗GPT, 이미 온 미래》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챗GPT, 이미 온 미래》는 챗(Chat)GPT 작동 원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비전공자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이다.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저술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책에는 △챗GPT 예전 인공지능과 다른 점 △챗GPT 동작원리 △챗GPT가 가져올 미래와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챗GPT, 이미 온 미래》 표지. (사진=중앙대 제공)

인문콘텐츠연구소 측은 “독자들이 《챗GPT, 이미 온 미래》를 통해 챗GPT 작동 원리를 심층 탐구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이다.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번 저서 발간과 같이 후속세대를 위해 학술적 성과를 잘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영 기자 marigold@unn.net